

쇠고기 개방과 끄떡없는 보성 '돼지박사' 일형석씨

“친환경 고급육, 소비자가 먼저 알아요”

“모돈(母豚)을 제대로 관리하고, 친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고급육을 생산하면 수입쇠고기도 두려울 게 없어요.”

13일 보성군 조성면 귀산리 '귀산농장'에서 만난 '돼지박사' 일형석(63)씨는 “축산개방이 양돈농가에 어려움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이나, 최선을 다하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2003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돼지고기 관세까지 없어질 경우, 국내 돼지고기값이 30%까지 떨어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양돈농가들을 공황상태로 내몰고 있다.

이에 대해 일씨는 “수입쇠고기 바람이 진정되고, 양돈 농가들이 고급육으로 승부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물론 정부차원에서 하루빨리 원산지 표시제와 공동브랜드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일씨가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귀산리에 정착, 5마리의 돼지로 양돈업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73년의 일이다. 일씨는 평범한 양돈으로는 '가난'을 떨치지 어렵다고 판단, 다른 양돈농가와 차별화를 모색했다.

'청결' '건조' '적온'을 농장운영의 3대 원칙으로 삼고,

저비용 고효율 돈분뇨 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친환경 양돈에 뛰어 들었다.

“양돈장 인근에 178평 규모의 퇴비화 시설과 고액분리기를 설치, 돈분뇨 슬러리를 이용해 완숙퇴비로 만들

모돈 분만을 93% 전국 최고

'지리산 매실포크' 브랜드화

1천마리 사육 연수입 5억원

어 자경지에 사용하거나 인근 농가에 실비로 제공했죠. 골치아픈 돈분뇨도 처리하고, 친환경퇴비도 만들 수 있어 일거양득이었어요.”

일씨는 또 갖가지 가축병의 원인이 되는 밀식사육을 지양하고, 일반 농가보다 사육두수를 20% 줄인 소식사육을 택했다.

충분한 영양공급을 위해 고급사료에도 아낌없이 투자했다. 최고급 사료매입에 매달 2천500만원을 쏟아부었고, 그것도 부족해 죽초액·다시마 성분이 함유된 유기농

보조사료를 동원하기도 했다.

일씨는 “특히 가축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시스템을 갖췄고, 지난해에는 농림부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인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씨의 끈질긴 노력은 '귀산농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모돈 분만을 93%(전국 평균 77%),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모돈 회전율 2.5회전(≪ 2.19), 모돈 두당 이유두수 25마리(≪ 19~20), 모돈 두당 출하수 22마리(≪ 13.5) 등으로 전국 양돈농가 가운데 상위를 차지했다.

모돈 100마리를 포함, 1천여 마리에 불과한 귀산농장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성을 말해주는 이같은 수치들 때문에 가능했던 셈이다.

일씨는 현재 한달 평균 160마리를 순천축협에 출하, 4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연수입은 5억여원에 달한다.

'지리산 매실포크'라는 공동브랜드로 시중에 나오는 귀산농장의 돼지고기는 마블링과 착색이 쇠고기와 흡사한데 허여 착각 감기며 물리지 않는 육질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소문난 상태다.

일씨는 “앞으로도 모돈수를 더 늘리지 않고, 후보 모



일형석씨가 '귀산농장' 돈사에서 새끼돼지들에게 사료를 주며 보살피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돈 갱신율을 50%까지 높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농장운영에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보성=안구일기자 gjahn@kwangju.co.kr

국제선 승무원 제100기 수료식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13일 아시아나타운 교육훈련동에서 100번째 국제선 승무원 교육생 50명에 대한 수료식을 거행했다.

국제선 서비스에 투입되는 100기 승무원 배출은 1988년 1기 승무원 43명의 입사 후 19년만의 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04년부터 인턴제를 도입해 1년간 국제선 인턴승무원으로 직무 수행 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여학자격을 강화하고 체력측정에 수능테스트를 도입하는 등 안락한 서비스 제공과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도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승무원은 1기부터 100기까지 총 4천65여명을 채용해 현재 외국인 승무원 336명을 포함해 2천666명이 기내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

월급통장 이자 연 4%대로

은행권 예금이탈 막기 금리인상 본격화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은행들이 예금이탈을 막기 위해 급여계좌 통장의 금리를 최고 연 4%대로 인상하기 시작했다.

이자가 연 0.1~0.2%에 불과한 월급통장에 대해 '고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증권 CMA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기업은행은 13일 직장인 월급통장 잔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최고 연 4.0% 금리를 주는 '아이플랜(I Plan) 대한민국의힘통장'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직접 설정한 기준금액(최소 300만원)까지는 연 0.15% 금리가 적용되고 기준금액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3~4% 금리가 지급된다. 전자금융거래 수수료도 무제한 면제한다.

또 이자 대신 대출금리 우대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했다. 통장가입 고

객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기준 금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대출금리가 최고 4%포인트 할인되는 방식이다. 기존 월급통장 고객은 창구에서 전환신청을 하면 된다.

농협도 내달 중으로 월급통장에 최고 연 5% 금리를 적용하는 '뉴해피통장'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50만원 이상 초과분을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으로 전환하면 연 4%대 금리를 주는 '스윙 어카운트'(Swing Account) 방식을 도입했다.

하나은행도 다음달께 이같은 방식으로 월급통장의 잔액이 일정액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하나대우증권의 CMA로 이체시켜주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일정액 이상 보통예금 잔액에 대해 연 4%대 금리를 주는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가세 무신고자 27일까지 신고면 감면

국세청은 13일 올해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기한(7월25일) 내에 신고하지 못한 무신고자 40만여명이 이달 27일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등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등을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말 국제기반법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부가세의 올해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이 되는 이달 25일이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인 2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신고자 40여만명에 개별 사업자별로 기한 후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에서 10%로,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에서 20%로 줄어드는 등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조일케이블 인터넷사업

전남동부방송서 인수

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업체인 ㈜전남동부방송의 조일케이블네트워크 인터넷접속역무 인수를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남동부방송의 재정,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영 능력

은 물론 초고속 인터넷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뒤 공정거래위와 협의를 거쳐 인수를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다만 이번 인수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최소 1년간 기존 양도인 가입자의 선택요금제 유지와 기존 요금제도의 선택권 보장,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보호계획을 보고하도록 한 인가조건을 부가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경영진단

삼성전자는 그룹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핵심사업인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부문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삼성 관계자는 13일 그룹 전략기획실 경영진단팀과 삼성전자 감사팀이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부문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영진단은 반도체 부문의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초부터 계획된 것으로 빠르면 이번주내 시작돼 약 한달 반 가량 지속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2010년 반도체업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목표 연도까지 4년 남은 이 시점에서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략 및 세부 실천방안을 종합 점검하는 것이 이번 경영진단의 기본 목표”라고 설명

명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201억달러로 1위 기업의 304억달러와 100억달러 이상 차 이난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부문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4년 동안 반도체로만 매출을 100억달러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도시바, ST마이크로 등 경쟁사들의 합종연횡, 공격적 투자 등에 대응해 메모리 부문 1위, 플래시 부문 1위 등 삼성전자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시장 리더십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도 이번 경영진단의 목 적이다. /연합뉴스

대학생 어학연수 비용 평균 1,500만원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평균 1천500만원의 비용으로 9.3개월 동안 연수를 보낼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4년제 대학생 856명을 대상으로 어학연수 계획을 물었더니 20.3%가 '올해 해외로 어학연수를 떠날 예

정'이라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예상하는 연수 비용은 500만~1천만원이 32.2%로 가장 높았으며, 500만원 이하(29.9%), 1천만원~2천만원(21.3%) 등으로 평균 1천500만원인 것이 집계됐다. 연수기간은 6개월~1년이 55.2%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어

2~6개월(36.8%), 1개월 이하(3.4%), 1~2년(3.4%) 등의 순으로 평균 9.3개월이었다.

대학생들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77.6%)에서 연수받을 계획을 희망했으며 일본(12.1%), 중국(6.3%), 프랑스(1.1%)로 가겠다는 사람도 일부 있었다.

어학연수 비용은 대개 '부모님이 마련'(42.0%)해 주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42.0%)서 돈을 모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